

김

채

영

여

은
설

기

린

현

고

신

신

권 금

피 네 건

수

×

현

Asynchronous Singing

샤

항

채

2024.4.5 — 6.30

논

선 환

망

은

김

오

꿈 꾸

로

유 다

는 베

민

영

프

경

아

전

키

노

동

래

타

민

라

움

입

콘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실 ARKO Art Center Gallery 1, 2

KO Kwonkeum KIM Chaelin KIM Eunseol KIM Sunhwan Dreaming Barrierfree laumkon
SHIN Suhang × SHIN Hyunchae Oro Minkyung Dayoung Yu archetypes JEON Dongmin
HAN Youngyun Finnegan Shannon

아르코미술관이 있는 혜화역과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이해하나요?

《여기 닿은 노래》 전시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노래와 합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줘요. 참여작가들의 작품들은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삶의 속도와 시간이 다르며,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는 '미술관'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곳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전시의 모습과는 다를지도 몰라요. 기존의 감상 방식과는 다른 시도를 이번 전시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울러 전시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장애인들이 미술관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미술관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곳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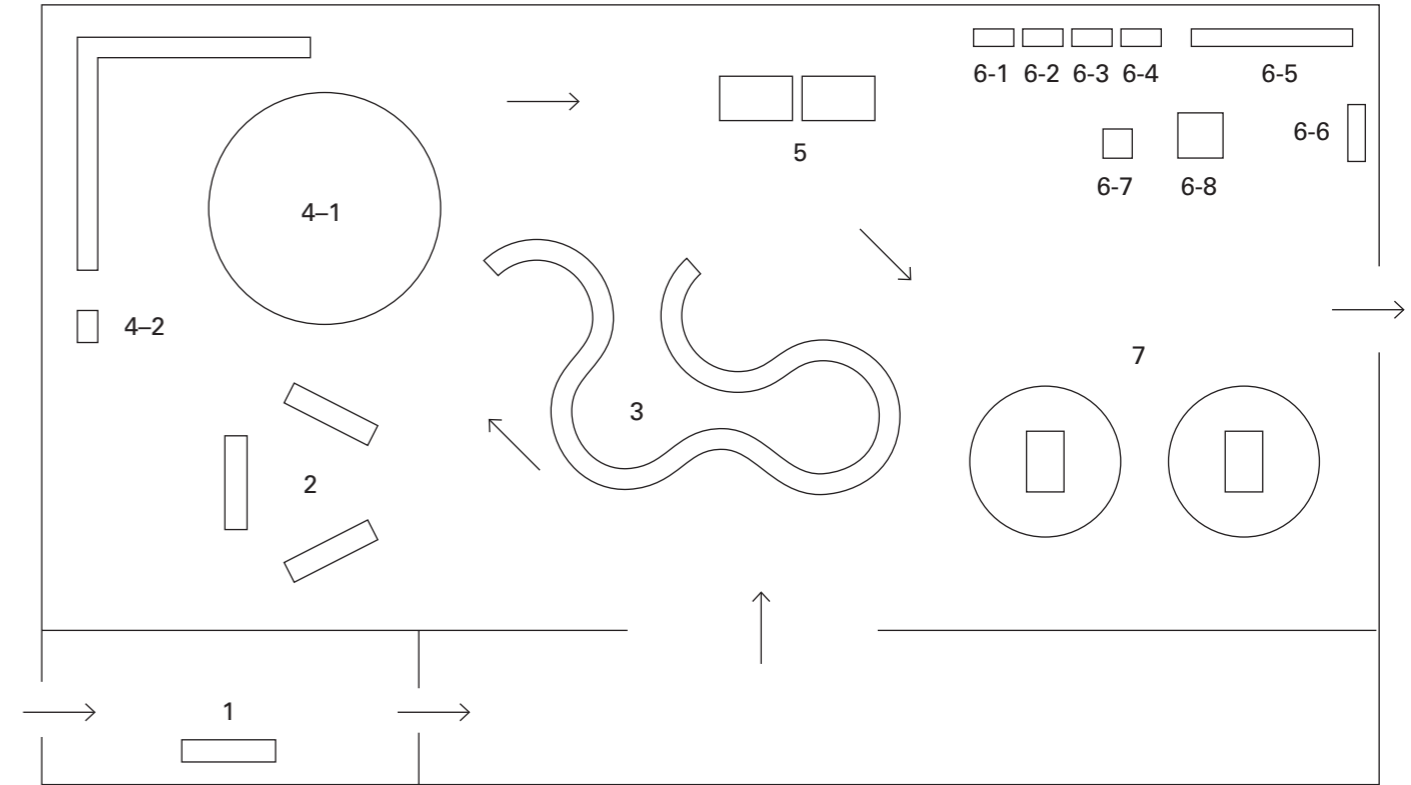
《여기 닿은 노래》 전시는 단순하고 명확한 답보다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1전시실

🎧 헤드셋 사용해 주세요(한글 자막해설 부분 포함)

🎵 소리가 나와요

👉 만질 수 있어요



1 아키타입(이지원), 《아르코미술관 감각 지도》, 2024

아키타입(이지원)은 미술관 사용자들이 쉽게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시장 입구와 출구에 중요한 안내 사항을 배치해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환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용 안내문은 아르코미술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김은설,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언어>, 2021

3채널 비디오, 21분 15초



세 명의 농인은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요?

그들은 눈빛, 입 모양, 표정, 손짓(수어), 글자를 사용해서 서로 이야기해요.
전시장에는 그들의 말하는 소리가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와 표현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들의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당신의 언어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3

라움콘, <과정의 과정>, 2024

목재 테이블 위 드로잉과 오브제, 디지털액자, 천 위에 인쇄, 가변크기

라움콘은 O레이터(이기연)와 송지은 작가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O레이터는 뇌출혈을 겪었지만, 그 후에도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손 그릇>이나 <한 손 장갑> 같은 생활용품들을 만들었어요.

전시에 출품된 이번 작품은 작가의 지난 작품들을 만드는 과정과 함께 우리 환경이 어떻게 장애인에게 친절하지 않은지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작품은 협력과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아키타입(이지원)



4-1. <라운드 라운드테이블>, 2024, 혼합재료(테이블과 의자: 나무, 철, 시트지, 웹 포함), 330x330x85cm

4-2. <아르코미술관 감각 지도>, 2024, 혼합재료(수어해설 영상, 점자 출력물 등 포함), 가변크기

기획 / 총괄	이지원
리서치	이지원, 서린
글	이지원
그래픽 디자인	이지원
감수 및 자문	김상희, 박찬욱 (노들장애인야학)
수어 통역	이소연, 신지선 (수어공감)
영상 제작	ZFR studio
가구디자인	황희은 (아로공간)

아키타입(이지원)은 미술관, 박물관, 전시 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조사하고 분석해요.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 접근성과 관련된 체크리스트와 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를 모읍니다.
- 이 정보를 원형 테이블 상판에 기록합니다.
- 자주 언급된 내용은 희미한 글씨로, 적게 언급된 내용은 진한 글씨로 표시합니다.
- 이를 통해 과연 접근성 매뉴얼에 무엇이 빠져있으며,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봅니다.

이 연구는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배제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5 라움콘×피네건 사논, 〈우리 여기서 환영받는 거 맞죠, 아닌가요?〉, 2024-진행 중 🖐

합판 위에 페인트, 실크스크린, 86.6×150×41cm

디자인 및 제작 이민희(티비디 프로젝트), 주성디자인랩

제목 번역 이수진

의자가 없는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서서 전시를 봐야 해요.

이런 상황은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죠.

왜 의자를 전시에 사용했을까요?

작가는 전시장에 의자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했어요. 의자 위에 메시지를 써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전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전시할 의자를 위해 라움콘의 멤버인 O레이터가 특별한 문구를 제시했어요. 이 의자들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면서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놓여 있습니다.

6 유다영

6-1. 〈과거는 생각나지 않고〉, 201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80×60cm

6-2. 〈달을 수 없는〉, 201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60×80cm

6-3. 〈사라지는 결〉,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42×30cm

6-4. 〈미궁으로 빠지는 일〉,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80×120cm

6-5. 〈별, 강 01-10〉 연작,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32×25.4cm

6-6. 〈없었던 것으로부터의 시선〉, 2024, 단채널 비디오, 11분 11초 🎧

6-7. 〈촉감하지 않고 너를 안을 수 있는 방법 2〉, 2024, 천 위에 UV 프린트, 40×40cm (3점) 🖐

6-8. 〈촉감하지 않고 너를 안을 수 있는 방법 1〉, 2024, 천 위에 UV 프린트, 60×60cm (2점) 🖐

유다영 작가는 사진의 역할을 고민하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짧은 이야기(단편 소설) 형식으로 쓴 글과 사진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와 글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는 방식에 따라 이 이미지와 글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소설 속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진 속 풍경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사진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도구가 됩니다.

7 꿈꾸는베프, 〈마음으로 읽는 타로〉 🖐

부산에서 활동하는 '꿈꾸는베프'는 화면해설작가들이 만든 단체예요.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시각장애인이 타로 상담사로 활동하는 〈마음으로 읽는 타로〉를 소개해요.

시각장애인 타로 상담사는 어떻게 타로 카드를 읽나요?

— 이들은 음성 자료 등으로 타로 카드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각장애인 타로 상담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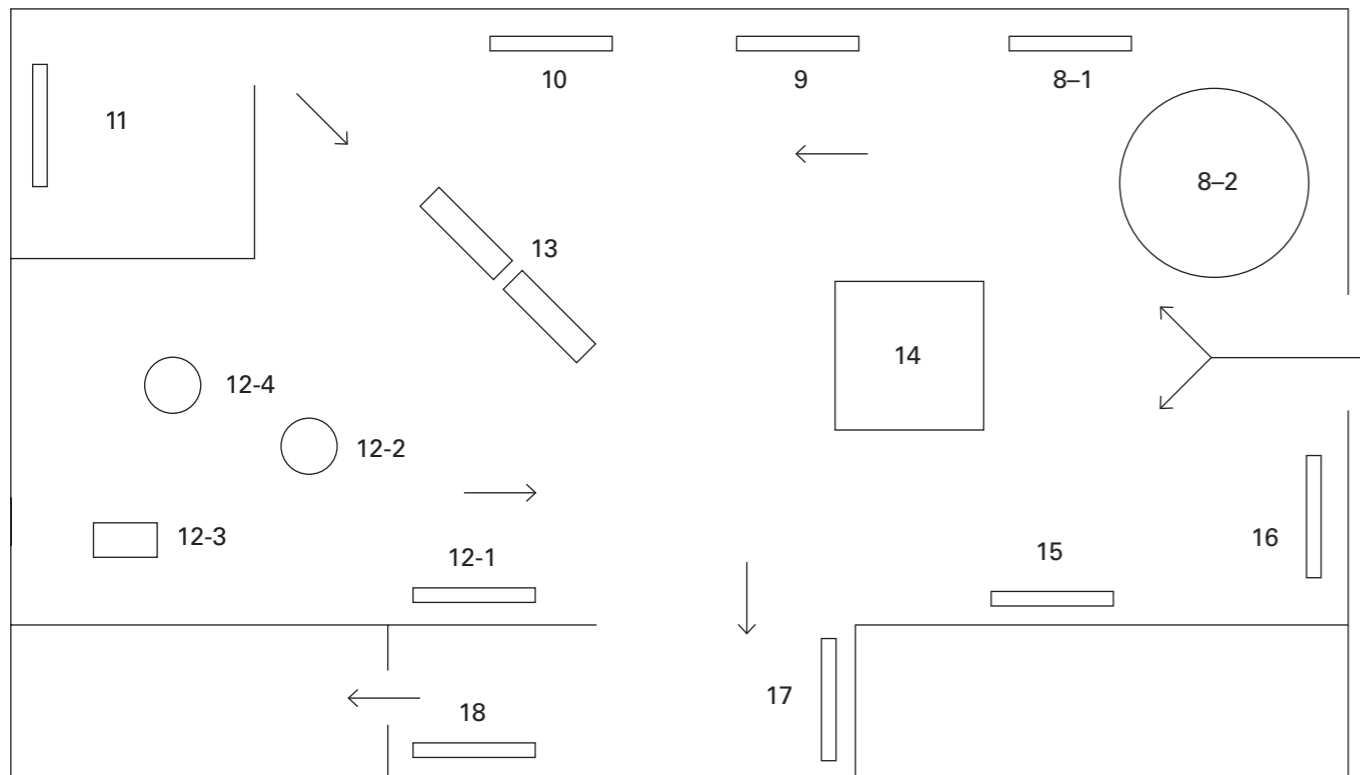
— 점자로 된 타로 카드를 사용해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를 나누며, 치유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 자료집 6종은 전시장 비치용입니다.

※ 본 프로그램은 5월 초 아르코미술관 홈페이지(www.arko.or.kr/artcenter)와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프로그램 시 상담사와 참여자의 대화로 인한 소리가 전시장에 울릴 수 있습니다. 관람객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오로민경

8-1. <복잡한 몸을 위한 용기와 사랑>, 2021(2024년 재제작), 점자책, 목자책,

각 15x30cm, 20x10.5cm 👉

8-2. <소리 뒤의 소리 #2>, 2024, 사운드센서, 혼합매체, 가변설치 🎵 👉

<소리 뒤의 소리 #2>는 다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각*적 경험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작품이에요.

이번 전시를 위해 다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요. 관객이 '칼림바'라는 악기를 연주하면 주변의 물건들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며 빛을 발해요. 작가는 이 음악을 '마른 풀의 노래'라고 부르며, 이 소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진동으로 서로를 위로하길 바라죠. 작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환영하고 돌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 공감각: 공감각은 한 감각을 통해 느낀 것이 다른 감각으로도 느껴지는 현상. 예) 소리를 들으면 색을 떠올리는 것.

9

김은설, <청각장애 AI 학습 #2>, 2024



단체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스테레오), 10분 35초 [한글 자막해설 제공]

인공지능(AI)은 많은 정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해요. 작가는 이것이 자신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입 모양을 보거나 기억을 사용해요. 하지만 가끔 잘못 이해하기도 하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종종 틀리게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작가는 인공지능이 언어를 배우는 것과 자신이 보청기를 사용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10

신수향*신현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2023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4점), 단체널 비디오, 40x50cm(4점), 8분 47초 [한글 자막해설 제공]

신수향과 신현채 두 작가는 '두구'*에서 만나, 서로의 장애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인 두 사람은 공동 작품을 제작하여 각자 가진 고민과 입장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공유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 작품을 만들고 협력을 배우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고 있어요.

두 작가가 함께 작업한 작업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 두구: 부산에 있는 장애·비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

11 김은설, <진동하는 몸의 대화>, 2023 

단체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진동스피커, 17분 10초 [한글 자막해설 제공]

※ 앉아서 작품을 관람해주세요.

작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몸을 맞대고 그들의 몸에서 느껴지는 소리와 진동을 통해 소리를 배웠어요. 영상에 등장하는 두 안무가*는 그 경험을 다시 표현해요.

소리를 다른 방식으로 느낀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안무가는 공기와 공간 사이에서 전해지는 진동을 통해 소리를 경험하고, 그 느낌을 공유해요. 작가는 소리 듣기가 귀만이 아니라 몸 전체와 마음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 안무가: 움직임이나 춤을 디자인하는 예술가

12 김채린



12-1. <만져질 조각>, 2024, 단체널 비디오, 4분 

(안무: 김석중 / 퍼포머: 김석중, 이성수 / 사운드: 서혜민 / 영상: 김용현) [한글 자막해설 제공]

12-2. <끌어안는 조각>, 2024, 강화석고, 퍼티, 페인트, 에코플렉스0030 실리콘, 베이비 파우더, 히팅패드, 지우개, 이어플러그, 수풀모형재료,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줄, 1300t 실리콘, 스피커, 52x44x72cm (사운드: 서혜민)   ※ 작품을 살며시 끌어안거나 만져볼 수 있습니다.

12-3. <쓰다듬는 조각>, 2024, 석분점토, 젤스톤, 콘택트마이크, 믹서, 스피커, 69x64x17cm  

※ 작품을 쓰다듬어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12-4. <안아서 어르는 조각>, 2024, 플라스틱점토, 석분점토, 에폭시, 나무공, 호두나무, 에코플렉스0030실리콘, 이어플러그, 1402실리콘, 강화석고, 형광아크릴봉, 스폰지, 황동막대, BB탄 총알, LED조명, 아두이노, 릴레이, 50x50x48.5cm  

※ 아기를 달래듯 작품을 들어올려 양옆으로 천천히 흔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설치, 기술도움 김준서
제작보조 박형조

김채린 작가는 조각 작품을 만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 전시에서는 관객들이 작품을 직접 만져보게 해서, 보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관객들은 작품을 만질 때 느껴지는 소리, 빛, 온도를 통해 작품의 질감과 특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더해가며 작품을 감상하게 돼요.

누구든지, 자신의 지식이나 신체와 상관없이 작품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작가는 감각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13 라움콘x피네건 사는, <우리 여기서 환영받는 거 맞죠, 아닌가요?>, 2024-진행 중 

합판 위에 페인트, 실크스크린, 86.6x150x41cm

디자인 및 제작 이민희(티비디 프로젝트), 주성디자인랩
제목 번역 이수진

의자가 없는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서서 전시를 봐야 해요. 이런 상황은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죠.

왜 의자를 전시에 사용했을까요?

작가는 전시장에 의자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했어요. 의자 위에 메시지를 써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전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전시할 의자를 위해 라움콘의 멤버인 O레이터가 특별한 문구를 제시했어요. 이 의자들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면서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놓여 있습니다.

14

한영현

〈시저〉, 2021, 편지지에 펜, 17.5×13cm (양면으로 구성)

〈체사레〉, 2021, 편지지에 펜, 17.5×13cm

〈내 그대를 생각함은〉, 2021, 편지지에 펜, 17.9×13cm

〈시저 왕자님께〉, 2022, 편지지에 펜, 18×14.9cm (양면으로 구성)

〈인경 선생님께〉, 2022, 편지지에 펜, 18×14.9cm (양면으로 구성)

〈마야 선생님〉, 2022, 편지지에 펜, 21.5×15.2cm

〈안매〉, 2022, 엽서에 펜, 15.5×11cm

〈왕자님 선물바라기〉, 2022, 엽서에 펜, 10.5×15cm


〈사랑, 행운, 따뜻한 향〉, 2023, 엽서에 펜, 스티커, 14.8×10.5cm

〈한중후 귀엽운 딸〉, 2023, 편지지에 펜, 수정액, 21×14.8cm

〈편지 1〉, 2023, 종이에 펜, 색연필, 25.7×18.5cm

〈칭찬〉, 2023, 편지지에 펜, 19×14cm

〈다 함께〉, 2023, 노트에 펜, 21×15cm

점자책은 만지며 읽어주세요. 

한영현 작가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정성스레 편지를 써요.

작가의 편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편지에는 상대의 안부를 묻고, 행동을 칭찬하며, 행복과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요즘은 손으로 쓴 편지를 받거나 보는 일이 드물어졌는데, 작가의 이런 편지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를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15

전동민, 〈광주전경〉, 2017

한지에 채색, 130×324cm

전동민 작가는 동양화로 풍경을 그리는데, 많은 색을 사용합니다.

작품 〈광주전경〉은 무등산에서 본 광주시 모습이 담겨있어요.

작가는 색과 선, 면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섞어서 광주시의 모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16

김선환, 〈무등산〉, 2022


동판, 40×60cm

김선환 작가는 동판을 사용해서 그림을 만들어요. 이동이 어려운 작가는 사진 같은 매체를 보고 그 풍경들을 동판에 두드리고 새겨서 형태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판의 색이 바래는 것을 보면서, 작가가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어요.

17

고권금, 〈나는 나를 기대합니다〉, 2023

단체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15분 40초 [한글 자막해설 제공] 

우리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함께 춤출 수 있을까요?

〈나는 나를 기대합니다〉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독특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움직임도 살피며 함께 춤을 춥니다.

이들은 “나의 몸이 돌로 된 편지라면, 나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경험해요.

안무가 고권금은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시차군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군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군무: 일사불란하게 무리를 이루어 추는 춤

18

아키타입(이지원), 〈아르코미술관 감각 지도〉, 2024

아키타입(이지원)은 미술관 사용자들이 쉽게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시장 입구와 출구에 중요한 안내 사항을 배치해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현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용 안내문은 아르코미술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공연

노들에스쁘와 (어라운드 아코미술관)

일시	4월 4일(목) 오후 5시 30분
장소	아코미술관 로비
기획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에스쁘와’는 2017년부터 매주 화요일 낮 노들장애인야학에 모여 춤과 움직임을 탐구해온 프로그램의 이름이자 참여하는 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어라운드〉 프로젝트는 춤추는 동그라미가 넓어지는 만큼, 삶의 공간도 함께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환영하는 노들에스쁘와의 열린 춤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1. 〈모두의 홀라〉

일시	5월 18일(토)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아코미술관 1층 공간열림
기획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
참여자	강우석, 김수진, 부용구, 이정찬, 인마실, 장혜정, 전승은, 조승연, 최경화

‘선샤인아놀드홀라’는 발달장애청년과 길동무가 함께하는 하와이안 홀라 동아리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알로하(Aloha)”를 손동작과 온몸으로 전하고 다닙니다. ‘선샤인아놀드홀라’의 주제곡 “You are my sunshine” 과 함께 홀라를 나누는 시공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모두 평화와 자유를 향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모두의 홀라〉라고 부릅니다.

※ 본 프로그램은 5월 초 아코미술관 홈페이지(www.arko.or.kr/artcenter)와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마음으로 읽는 타로〉

일시	5월 25일—26일(토, 일요일) / 6월 1일—2일(토, 일요일)
장소	아코미술관 제1전시실 내 꿈꾸는베프 부스
기획	꿈꾸는베프
담당자	엄다인(꿈꾸는베프)
타로 심리 상담사	류연옥, 신미숙, 이경화, 추민정

〈마음으로 읽는 타로〉는 시각장애인 타로 심리상담사들이 점자로 만든 타로 카드를 매개로 참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시각적 요소 대신 마음 대 마음으로 창의적인 타로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손가락과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는 〈마음으로 읽는 타로〉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벗어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5월 초 아코미술관 홈페이지(www.arko.or.kr/artcenter)와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프로그램 시 상담사와 참여자의 대화로 인한 소리가 전시장에 울릴 수 있습니다. 관람객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등장 연습 워크숍 짜잔〉

일시	6월 7일, 14일, 21일(매주 금요일) 오후 1시—4시 30분
장소	전시장 내
기획	제로셋프로젝트

〈월간 짜잔잼〉

일시	6월 28일(금) 오후 2시 30분—3시 30분
장소	전시장 내
기획	제로셋프로젝트
참여자	고지선, 김수진, 김주희, 박소민, 신병선, 신승연, 신현상, 왕지용, 이승미, 이연옥, 최재형, 황임실, 고권금, 박소희, 박찬욱, 신재, 이창현, 임미경

등장 연습 워크숍 “짜잔”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준비-시작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컨택 즉흥 춤 모임입니다. 짜잔은 2022년부터 매주 금요일 노들장애인야학에 모여 ‘내 이름을 딴 체조, 내 몸으로 낼 수 있는 소리,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힘과 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다른 사람의 몸과 움직임’을 찾으며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월간 짜잔잼’이라는 춤판을 열어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 시 전시장에 참여자들의 움직임과 음악 재생으로 인한 소리가 울릴 수 있습니다. 관람객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6월 28일(금) 진행되는 공연은 6월 초 아코미술관 홈페이지(www.arko.or.kr/artcenter)와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전시해설(도슨트) 프로그램

일시	4월 5일—6월 30일, 화—일요일, 14:00, 16:00
시간	회차당 30분 내외
대상	관심 있는 누구나 단, 주말은 어린이(만 7세 이상) 및 동반가족을 위한 도슨트로 진행
인원	회차당 20명
참가비	무료
참여방법	1층 안내데스크 문의 후 전시실 입구에서 집결 후 시작

※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안내는 아코미술관 홈페이지 및 SN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아르코미술관×지역문화재단 협력 주제기획전

《여기 닿은 노래》

2024.4.5—6.30

아르코미술관 제1, 2전시실

참여작가

고권금, 김선환, 김은설, 김채린, 꿈꾸는베프, 라움콘, 신수항×신현채,
오로민경, 유다영, 아키타입(이지원), 전동민, 피네건 샤논, 한영현

협력기관

광주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가나다 순)

한글 자막해설 및 쉬운 글쓰기 작성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센터 서수연

아르코미술관

03087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02-760-4850

www.arko.or.kr/artcenter

인스타그램

@arko_art_center

페이스북

ARKOArtCenter

X

@ArkoArtcenter

유튜브

@arkoartcenter

관람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입장마감 6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